



우리의
家章

青松沈氏宗報

發行人：沈明求
編輯人：沈載烈(輔)
서울市 中區 五壯洞 14-10
電話：(02)2267-7857
(02)2263-7897
FAX：(02)2269-7755

非賣品 1996. 1. 3 등록번호 서울라 - 549호

홈페이지 | www.cheongsongsim.or.kr

謹賀 2007(丁亥) 新年



대중회 회장
沈明求

丁亥年の 새아침을 맞으며

정해(丁亥)년의 새해 아침이 밝았습니다. 금년에도 일가 여러분의 가정이 평안하시고 항상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바라며 소원하시는 모든 일을 성취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는 바입니다.

지난해에는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우리의 관향인 청송에 청송심문의 위상을 높이고 시조산소에 성묘하러 오시는 전국 일가분들이 편히 쉬었다 가실 수 있는 회관을 신축하고자 합니다. 작년 12월에 부지를 매입하였으며 금년중에 건물을 신축하여 종회사무실을 만들고 편의시설을 갖추도록 할 계획입니다.

시조산소의 제각으로 찬경루와 만세루가 있는데 찬경루는 청송군에서 국가 문화재로 승격시켜 보수하고 그 일대를 공원화하기 위한 정화작업에 착수하여 앞으로 찬경루내에 있는 사무실을 사용할 수 없게 되며, 만세루는 지붕기와 교체작업을 하게 됩니다.

안성 3세조 청화부원군 산소는 사초를 하면서 묘역을 넓히고 상석교체와 조경수를 심어 정화작업을 하였으며, 여름철 폭우에 도기동 배위분 산소의 제절 일부와 좌측 계곡이 무너져 내리는 큰 피해를 입어 석축을 쌓고 계곡을 정비하였습니다.

그리고 청주 4세조비(淸州宋氏) 산소는 신축중인 아파트를 분양받아 관리사로 사용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산소 인근에 있는 상가건물을 구입하였으며 건물의 운영수익으로 제향을 모시고 산소를 관리하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하고, 종회사무실을 마련하여 청주지역에 거주하시는 일가분들의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중회에서는 5처산소를 수호하면서 조상님께서 물려주신 소중한 재산을 보존하고 증식해 나가기 위하여 조금도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리고 각 지역에서 산소를 수호하고 제향을 봉행하면서 위도를 관리하고 계신 有司님들과 일가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대동세보(2002년도 발간)의 수권에 등재하지 못한 조상님들의 사적이 너무 많아 3년여의 작업 끝에 2006년 4월 대동세보『수권속편』을 발간하면서 아울러 선조님들의 한시집을 번역한『청송심씨세고선』 『종보(창간호~50호)축쇄판』 『제향홍기』 『종사수첩』등을 함께 배포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문중의 『가장(家章)』을 새롭게 디자인하여 종기(宗旗)를 만들어 사용하고 있으며, 새로운 가장으로 뺏지를 제작하여 보급하고 있습니다.

금년 12월에는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입니다. 국가의 지도자로서 덕목을 고루 갖춘 후보를 선택하여 우리나라의 경제가 다시 활력을 회복하고 모든 국민들이 열심히 일하면서 마음 편하게 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해에도 일가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무난하게 지낼 수 있었던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새해에는 일가 여러분의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고 가족 모두가 건강하시기를 다시 한번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丁亥元旦

青松沈氏大宗會 會長 沈明求

謹賀新年

青松沈氏大宗會

多事多難했던 丙戌年 한해가 지나가고 希望찬丁亥年 새해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일가 여러분 새해 福 많이 받으시고 모든 일을 成就하시기를 바라며 家庭이 平安하고 幸福하시기를 眞心으로 祈願합니다.

顧問 魚澤 成澤 相琦 鍾燮 晶求 宜燮 榮燮 載鴻 載榮

指導委員 載完 相明 相弼 完求 達燮 大燮 完燮 璋燮 載德 宇永

會長 長 明求 大平 勳 鍾漢 埃龍 允宗 基哲

副會長 長 宜洛 庚周 斗燮 甲輔 相郁 相殷 贊求

監事 相稷 載冕 春植

執行部 總務理事 鍾赫 財務理事 仁輔 文化理事 載烈

有司 青松 源澤 相國 咸悅 燿燮 安城 光澤

(漣川) 良燮 (淸州) 成輔

理事 堯澤 永澤 宜杓 相學 相贊 相助 相默 上銀 映求 亨求

星求 載求 興燮 泰燮 洋燮 昌燮 洪燮 容圭 載萬 三祚

光永 載金 殷植 在錫 元植 載澈 載珍 愚增 愚範 愚夏

武錫 春輔 英輔 愚龍 勇鎮

(釜山) 相均 載德 萬仁

(天邱) 鼎澤 湖澤 紅燮

(天田) 玄根 宜哲 逸燮 載重 揆燦

(仁川) 在安 然澤 相圭 相振 駿求 德求 健燮 仁植 大植 載善

載警 載鎔 江水 左輔

(光州) 勝燮 鎮植 鍾德 在均 觀燮 憲燮 堯燮 判求 信求 棧求

愚慶 石煖

(蔚山) 根植 吳植 應輔 壽輔

(江原) 相汶 相祐 萬澤 相穆 晟求 東燮 正輔 敏燮 在敦 相夏

相甲 載殷 相鴻 載求 茂植 愚弘 東出

(京畿) 相龍 相億 相勳 相英 相弘 元燮 康燮 明輔 允輔 鍾洪

宗玉 求亨 偵植 忠燮 龍燮 應璋 政燮 相德 一用 洵燮

載萬 文錫 載潤 昌輔

(忠北) 相昊 載龍 中鎮 彰來 麟澤 相鶴 鍾漢 相高

(忠南) 承澤 載善 甲澤 仲燮 相夏 載令 允澤 仲根 泓植 永鍾

(全北) 相冰 鍾根 相根 估燮 斗燮 判燮 珉燮 載政 尙道 安輔

秀永 秀一 正秀 鍾默 相坤 相貴 載音 相哲 載吾 相萬

(全南) 載炫 相錄 行燮 貞燮 棋官 雄燮

(慶北) 蓮澤 相禧 華燮 張植 宜錫 在淑 花鮮 喆鏞 容爽

(慶南) 泰燮 東燮 吉守 吉燮 柱燮 在圭

(慶南) 泰燮 東燮 吉守 吉燮 柱燮 在圭



대중회 부회장
沈斗燮

丁亥年の 새아침을 맞이하며

2007년 1월 1일 정해년의 새 아침을 맞이하였습니다.

해마다 겪는 일이지만 年初엔 지난해를 돌이켜 보게 되고 미진했던 일이 적지 않았음을

반성하게 됩니다.

올해도 건전한 사생활은 물론 宗會일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자 마음을 다져봅니다.

중인 여러분 금년에도 尊體康寧하시고 대내 모든 일이 순조롭게 풀려 나가시고 또한 하시는 일이 날로 번창하시기를 축원 드립니다.

지난해도 조용하지가 못하였습니다. 예년에 없던 긴 장마와 폭우로 막대한 인명과 재산의 손실을 보았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원컨대 정해년인 올해에는 우순풍조하고 시화연풍으로 우리의 미풍양속인 훈훈한 인정이 전국 방방곡곡에 넘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는 나날이 발전하는 물질문명의 혜택으로 편리한 세상을 살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반면 이웃과 치열한 경쟁을 하여야 하는 냉혹한 세상이기도 합니다.

지구촌의 일원으로 그간 DECD(경제협력개발기

구) 가입의 모험도 하였으며 원치 않았던 IMF(국제 통화기금) 위기도 경험하였고, 근자에는 FTA(자유 무역협정) 협상의 난항으로 온 국민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한마음이 되어 슬기롭게 대처하여야겠습니다.

또한 금년 12월 19일에는 우리나라의 운명이 걸린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나라가 잘되는 것도 안 되는 것도 모두 국민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올바른 생각으로 좋은 사람을 뽑아 국가의 융성을 기약하여야겠습니다.

宗會消息으로는 먼저 수원의 安孝公 묘역 일대가 도시개발로 수용되어 친지들이 사망으로 헤어져 살게 되었습니다. 또한 김포의 信川公 묘역 부근도 수원과 비슷합니다.

수 백년 살던 고향이 하루아침에 없어져 본의 아닌 실향민이 되었습니다. 당사자 되시는 중인 여러분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좌절하지 마시고 불요불불의 정신으로 깨끗하게 살아가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健勝하시기를 바랍니다.

宗人 여러분 새해 福 많이 받으십시오.

안효공종회 회장 沈斗燮 올림

하거나 물리나 집에 있거나 침착하고 여유가 있었으며 끝내 명예나 이익 후한대우로써 그 뜻을 움직이지 않았고 모두를 이익을 탐내는 가운데서 초연(超然)하게 스스로 벗어나니 선비들로서 올바른 사람들은 완전한 사람이라고 추앙(推仰)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공이 돌아가자 영의정 이의현(李宜顯)이 만시(挽詩)를 지어 말하기를 눈에 가득 찬 큰 물결처럼 넓기 한이 없고 곧고 깨끗하고 한결같은 마음은 자랑할만하다 하였으니 도리에 밝은 말이라 할 수 있도다 부인은 완산이씨(完山李氏)이니 중이 조판서(贈吏曹判書) 한익(漢翼)의 따님이요 홍문관 교리 호가 거주(家州)인 상질(尙質)의 손녀이고 증영의정의령남일성(宜寧南一星)이 그의 외조이다 부덕(婦德)이 갖추어졌고 공과 더불어 늙도록 항상 건강하였으며 을묘년(1735년)나라에 경사가 있는 뒤에 그 여러 아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五十年 동안에 처음으로 너의 아버지가 기뻐하는 얼굴을 보았다고 하였다 아들 셋이 있으니 규(鍾)는 목사(牧使)요 구(鉞)는 전에 군수였고 유(鑄)는 좌랑(佐郎)이며 딸은 하나인데 부사(府使) 유언현(俞彦鉉)에게 출가하였다 측실(側室)의 아들은 주(鑄)와 첨사(僉使) 추(鍾)요 딸은 유녹중(俞祿中)의 아내가 되었고 내외(內外)손자 증손자는 많아서 다 기록하지 못한다 종급(宗級)이 공에게 중표(中表:내외종)의 친척이 되므로 어렸을 때부터 일찍이 그 어머니를 찾아뵈고 공의 행의(行誼)가 매우 독실하다는 것을 익히 알았고 벼슬한 후에도 때때로 공이 있는 곳에 나가 공이 초연(超然)하게 홀로 있으며 문에 잡빈(雜賓)이 없는 것을 보았고 자는 곳은 두어칸 오두막집에 지나지 않고 시렁위에 두어 권의 책이 있을 뿐이었다 마침 지금 수三十年 동안에 세상이 점점 변하여 선배(先輩)의 규모(規模)와 본보기가 전진(前塵:심성(心性)을 더럽히는 육식(六識)의 대상계(對象界) 色聲香味觸法の 六境)에 막힌 것 같으니 늙은이가 긴 밤에 지금과 옛 일을 굶어보고 우러러 보아 일찍이 감개(感慨)하지 않음이 없었고 이어서 공을 따를 수 없다는 것을 더욱 믿게 되었다 이에 위와 같이 짓고 시호(諡號)를 내려 주기를 청하는 바이다.

< 끝 >

송정대부(崇政大夫) 행용양위부사직(行龍驤衛副司直)으로 치사(致仕)한 봉조하(奉朝賀) 서종급(徐宗級)이 삼가지음

경진二月 초 六日

十七世祖 吏曹判書 淸獻公 諱 宅賢 諡狀 ⑧

전후의 국상(國喪)에 스스로 정성과 예의를 다하여 비록 자기의 집에 있어도 공무로 있을 때와 다름없이 하였다 친구와 사귀게되면 잠시동안만 친하여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으며 늙도록 즐거고치려고 하지 아니하고 더욱 사람과 더불어 사리(事理)의 옳고 그름을 비교하려 하지 않으며 성내는 빛을 일찍이 얼굴에 나타내지 않았다 여러 번 백성과 나라의 일을 시험하여 어수선하게 고치는 것을 일삼지 않고 자기가 절약하여 백성을 편케하였다. 이조참의를 지내면서 지극히 공평하며 사정(私情)을 버렸고 문에 뇌물 들어오는 일이 없었고 비록 친족이나 아랫사람이 선물로 보내는

것이라도 만약 조금 과하면 문득 물리쳤다 젊은 나이에 벼슬길에 나아가 요직(要職)에 있었으나 항상 편안하고 고요하며 다투어 이익을 도모함을 기뻐하지 않았고 上下를 논의할 때 묵묵히 말하지 않아 무능(無能)한 것 같았고 서로 같지 않아 다투어 겨룰 때 즐겨 도와주지 않았다 신임(辛壬)사화(土禍)이후로 충신과 역적을 판단하는 것과 의리에 관심을 두는 것에 이르러서는 지키는 바가 특별히 굳었고 경계(境界)를 확실히 구별하였으며 무신년(1728년) 기유년(1729년)에 시대의 상황이 좀 변하여 세상에 흑 뜻을 굶히고 나가는 사람이 있었으나 공의 말과 지조를 지키는 것은 일절 잘못이 없었고 나가 벼슬

대동세보 수권속편(외 4종) 신청안내

구 분	페이지	가 격	신청부수
1. 대동세보 수권(속편)	-약 1,200P	50,000원	()권
2. 청송심씨세고선(합시집)	-약 600P	30,000원	()권
3. 증보속쇄판(1-50회)	-약 400P	20,000원	()권
4. 제향출기(휴대용)	-약 30P	3,000원	()권
5. 종사수첩(휴대용)	-약 140P	3,000원	()권
6. 뱃 지		1,000원	()개

▶ 1, 2, 3세권을 일시구입하는 경우에 한하여 4, 5, 6 세가지 물품을 무상으로 드립니다.

❖ 수령인 주소 및 송금내역

과 명	이 름	집 전 화	휴 대 폰
이 름		우편번호	
송금일자	송 금 인	금 액	송 금 은 행
		()은행()지점	

수권속편 질 단위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 ◆ 1질 단위는 발송비 없음.
- ◆ 질단위 외에는 발송비 3,000원을 대금에 합산하여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 기재요령

1. 파명은 봉익공파, 악은공, 도총제공, 판사공, 지성주사공, 인수부윤공, 안효공, 동지 총제공으로 구분
2. 주소는 번지와 동·호수까지 자세하게 기재, 집전화·휴대전화 꼭 기재요함
3. 송금인이 본인인 아니면 반드시 송금인명을 기재하고, 송금수수료는 신청자가 부담
4. 송금한 은행과 지점명을 기재

❖ 공지사항

1. 수권속편 신청금은 대동세보 관리통장 [농협 084-01-179314 심명구]으로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2. 수권속편 대금을 입금하신 분은 반드시 대중회에 신청자의 인적사항(이름, 주소, 전화번호 등)을 알려주셔야 합니다.
3. 수권속편이 5월 10일자로 발간되어 신청즉시 발송하고 있으며,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보내실 곳 ❖

서울 중구 오장동 14-10(산경회관) 청송심씨대중회
우편번호 100-310
TEL: 02)2267-7857, 2263-7897
FAX: 02)2269-7755

논단

◇현대 가정예절과 미래사회의 기대◇

2003년 3월 40호에서 계속

5. [격몽요결(擊蒙要訣)]을 통해 보는 실천예절



대중회 이사
沈星求

8) 택우(擇友)

배우는 자는 반드시 충성과 신의, 효도와 우애, 강직하고 방정하게 해서 돈독한 선비를 선택하여 交友로 정하여, 과실이 있으면 서로 경계하고 서로 절차탁마(切磋琢磨)하여 친구 사이의 윤리를 다할 것이다.

강설 : 만일 뜻을 세움이 돈독하지 못하고, 거두고 묶는 절제가 엄밀하지 못하고, 떠돌아 다님과 즐겁게 노는 것만 좋아하고 말이 나기운만 숭상하는 자는 모두 벗으로 사귀지 말아야 한다.

9) 거가(居家)

거가시(居家時)에 지켜야 할 예의 범절은 家禮에 의지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배우는 자가 이미 심신을 닦으려 한다면 반드시 가정에서 윤리를 다하여, 형은 우애하고 아우는 공손하게 한 몸같이 보며, 남편은 온화하고 아내는 양순하여 예의를 잃지 말 것이며, 의로운 방법으로써 자녀를 교육 하되 사랑만 가지고 충명을 현혹시키지 말 것이다.

강설 : 그리고 가정을 통솔하는 데는 엄숙함을 주로 하되 관대한 용서를 행하여, 굶주림과 추위에 대한 사정을 헤아려 생각하고, 위아래가 정연하고 엄숙하여, 안팎의 구별이 있어서 한집안 일의 처리는 극진한 도리를 힘쓰지 않음이 없어야 할 것이다.

10) 접인(接人)

家外에 鄉人들과의 접대 예법에 대해 말하고 있다.

배우는 자가 이미 가정을 바로 잡았으면 그것을 사람 접하는 데까지 예의를 준수하여, 어른을 섬기되 침식과 歩行을 모두 어른보다 뒤에 하되, 나이가 10세 이상 위이면 형같이 모시고, 배(倍) 이상 위이면 더욱 공손하게 대우하여야 한다.

강설 : 어린이는 慈愛로써 어루만져 주어야 하고 가족들에게는 화목하게 하고, 이웃들에게는 잘 사귀어 즐거워하는 마음을 얻게 해야 한다. 매양 덕과 학업을 서로 권장하고 허물을 서로 고쳐주며, 예의와 풍속을 서로 성취시키고 어려운 일은 서로 구휼(救恤)하여, 항상 남을 이롭게 하고 사물에 이로움이 있기를 생각하여야 한다. 남을 상해(傷害)하거나 사물을 해칠 생각은 털끝만큼이라도 마음속에 머물러 두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11) 응거(應舉)

과거급제는 뜻 있는 선비가 급급히 구할 바는 아니다.

강설 : 다만 과거의 득실로써 그 지킬 바를 잃을 것이 아니고, 또 항상 몸을 세워 도를 행하여 임금에게 충성하고, 報國 할 생각을 가질 것이요, 그저 구차스레 따듯하고 배부름만을 구할 것이 아니다. 진실로 도를 지향하여 게으르지

아니하고 날로 행하는 일을 도리대로 따르면 과거 공부도 역시 나날이 하는 일 중의 한가지이니 어찌 실제의 공부에 방해될 것인가?

오늘날 사람들이 매양 과거에 뜻을 빼앗길까 염려하는 것은 득실에 생각이 움직임을 면치 못하는 까닭이다. 또 요즘의 선비들 고질은 게으르고 방종하며, 글읽기에 힘쓰지 아니하고, 도학을 사모한다 하면서 과거 공부를 자세히 하지 못하여 한갓 세월만 보내고, 학문과 과거공부 중 한 가지도 성취하지 못하는 자가 많은 것이니 이것이 가장 경계할 점이다.

12) 수의(守義)

배우는 자는 義와 利의 분별을 하는 것보다 급한 것이 없으니 義란 것은 '무엇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

강설 : 조금이라도 '무엇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곧 利를 따라가는 무리이니 어찌 경계하지 않으랴? 善을 위한다면서 이름을 구하는 것은 利를 구하는 마음이니, 군자는 그것을 벽을 뚫는 것보다 더 심하게 보거늘, 허물며 不善을 행하면서 이득을 보겠다는 자임에랴? 배우는 자는 털끝 만한 이용이라도 가슴 가운데 간직해서는 아니 된다.

옛 사람은 부모를 위하여 노동에 힘씀에 비록 풀팔이와 쌀을 굶어지는 일도 불사하면서 그의 마음은 항상 개결(介潔)하여 利 때문에 땀을 흘리지는 않았는데, 오늘날의 선비가 된 자는 온종일 성현의 글을 읽으면서도 오히려 이심이 있음을 면하지 못하고 있으니, 그 어찌 애석한 일이 아니리오. 비록 혹시 집이 가난하여 생계를 영위하자면 할 수 없이 여러 가지 계획을 경영하지 않을 수 없으나 다만 이득을 구하는 생각은 싹트지 못하게 해야 한다.

그러므로 주고받고 하는 데서도 언제든지 그 당연한가 아닌가를 살피고 물질의 얻음이 있을 때에는 의를 생각해야 하고(見得思義), 털끝만큼이라도 구차스럽게 해서는 안된다.

13) 상충(尙忠)

忠厚와 氣節은 서로 표리(表裏) 가되는 것이다.

강설 : 스스로 지키는 절조가 없이 적당히 하는 것으로 충후(忠厚)를 삼는 것은 옳지 못하고, 근본의 덕이 없고 침과, 과격으로써 기절(氣絶)을 삼아서도 안 된다.

세속이 경박하매 實德이 날로 상실되어 괴변과 아부로써 남을 따르지 않으면 반드시 거만스럽게 기질을 숭상하는 자가 있어서 중용을 지키는 선비를 얻어 보기가 실로 어렵게 되었다. [시경]에 "온화와 공손한 사람이여, 오직 덕의 기초로다. 온온공인 유덕지기(溫溫恭人 維德之基)" 하였고 "약한 자라도 업신여기지 아니하고 강(剛)한 자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한다. 유역불여 강역불토(柔亦不茹 剛亦不吐)" 하였다. 반드시 온공(溫恭)하고 화순 하여 근본이 깊고 두터워진 뒤라야 이에 능히 정의를 수립하여 큰 절개에 다다라서도 그 뜻을 빼앗기지 아니하게 된다. 저 비루하고 아침하는 못난 자는 말할 나위도 없거니와, 명색이 학문한다는 선비로서 자신의 재주와 어질다는 것만 믿고 남을 경멸하고 사물을 목욕하는 자는, 그 피해가 말로 다할 수 없을 것이다.

요즘 선비들의 이와 같은 병폐는 진실로 禮學이 밝지 못하여 허례와 교만함이 습성을 이룬 데서 생긴 것이다. 모름지기 예학을 강명(講明)하여 윗사람을 높이고 어른을 공경하는 도리를 다하여야 한다. 진실로 이와 같이 해야 忠厚와 기절을 모두 얻을 수 있을 것이다.

< 다음호에 계속... >

沈영감 심민섭



● 송금안내 ●

찬조금 또는 종보 회비를 송금하실 분은 아래 구좌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소기업은행 033-031098-04-046
대중회 심명구
- 농협 084-12-055823
(을지로4가지점) 대중회 심명구

본 성금이나 회비는 전액 종보발간에 사용하고 있으며 별도회계로 독립 재산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청송심씨 대중회
전화: (02)2267-7857

● 청송시조묘소 연락처 ●

유사 상국 011-554-1313
원택 011-9355-3608

알림

派(地域)宗會旗製作申請

今年부터 우리門中の 家章을 변경하여 사용함에 따라 각 派宗會 또는 地域宗會에서 보유하고 있는 종회기를 교체하여야 하는바, 대중회에서 일괄 제작하여 보내달라는 요청이 있어 소요량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 ▶ 기존의 종회기를 교체하거나
- ▶ 宗會旗를 새로 제작하고자 하는 派(地域)宗會에서는 다음과 같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青松沈氏大宗會 (02-2267-7857)

宗會名	青松沈氏	宗會
住所		
電話番號	宅: - -	휴대폰: - -
신청내용	종회기(깃대 포함) : 180,000원 종회기(깃대 제외) : 150,000원	

理監總副會顧
會 會 長 問
事 務 長 長 青
元 昌 成 鳳 松
變 寬 圭 來 相 謹
載 承 載 洪 興 賀
西 喜 弘 燮 燮 年
憲 慶 來 興 來 仁 三
圭 來 興 來 仁 圭 三 圭

강좌

■ 심갑보(三益 THK 株) 부회장의 현장경영학 ■



부회장 심갑보

비정규직 보호법을 뜯어보니

비정규직과 관련된 3개 법안이 2006년 11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2007년 7월 1일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게 되었다.

이 법률은 ①비정규직에 대한 차별금지 ②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 근로자 고용제한 ③불법파견에 대한 제재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노동부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비정규직 근로자는 545만명(전체 근로자의 35.5%)이고 이들의 월평균 임금은 정규직의 62.8%. 국민연금과 산재보험적용비율은 각각 29.7%와 43.1%에 불과한 실정인데 이 법률이 입법 취지대로 시행만 된다면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법의 보호 테두리 안에서 자신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번엔 국회를 통과한 비정규직 관련법은 비정규직 보호에만 치중하고 있어 기업의 인력운용을 심각하게 제약하거나 기업에 많은 부담을 주는 등 시행 상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생각한다.

첫째로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금지 문제다. 차별 행위를 판단하는 기준이 모호한 상황에서 현 규정대로라면 근로자가 차별이라고 느끼기만 하면 기업이 이를 부정하는 증거를 내지 못하는 한 법적인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 그 결과 차별과 관련한 구제신청이 폭주해 노동위원회에 기능을 마비시킬 수 있을 것이며, 사용자는 기업 경영에 집중하기보다 노동위원회에 출석하여 변론하는데 상당한 시간을 할애해야 할 것이다. 또한 노동위원회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당하게 됨으로써 기업인들의 경영의욕이 상당히 위축될 수도 있을 것이다.

둘째는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기간을 2년으로 제한하는데 따른 문제점이다.

기업들은 새 법 시행 이후 2년 이상 근무한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2년이 도래하기 전에 근로관계를 종료해야 하며, 파견근로자도 2년을 초과할 경우 사용자가 직접 고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제경쟁력 때문에 정규직을 채용할 수 없는 서비스업 중이나 대기업과의 협력관계에 있는 중소기업의 경우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게 되면 인건비가 30~40% 이상 증가되게 되어 정규직으로의 전환은 거의 불가능하게 될 것이며, 기업의 생존을 위해서는 부득이 2년 이내에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새로운 기간제 직원을 채용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2004년 9월 정충이 조사한 비정규직 보호법 시행시의 인력운영계획

에 대한 기업 설문조사에서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응답이 11.6%에 불과했다고 한다.

거기다가 기업의 모집비용 및 교체 고용된 근로자가 새로운 업무에 적응할 때까지의 기회비용은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화에 소요되는 비용 못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근로자가 전직(轉職)하면서 발생하는 취업탐색비용과 새로운 직장과 업무에 적응하는데 드는 기회비용 역시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사용자가 2년이 경과한 파견근로자를 직접고용하지 않을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까지 부과하게 되어있어 사용자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이 법을 엄격히 적용할 경우 4만명 이상으로 추산되는 전국의 각 대학과 연구기관의 석·박사급 시간강사와 계약직 연구원 등 고급인력이 대량 실직상태를 맞거나 2년 단위로 이곳저곳을 옮겨 다녀야 하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 걱정된다. 따라서 정부는 차별적 행위에 대한 해석을 명확히 규정하고 앞에서 언급한 문제점들이 현실화되지 않도록 보완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비정규직을 많이 사용하는 사용자도 입법취지를 잘 이해하고 인력수급계획을 합리적으로 수립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또 비정규직 근로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는 노동조합의 동참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비정규직의 권익보호라는 입법취지가 되색하여 기업경영도 어렵게 만들고 근로자의 일자리마저 줄어들게 하는 우(愚)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심갑보 삼익THK주식회사 대표이사 부회장

기행문

타프린에서 LA·허리우드 ㉓



대중회이사 심성구

그러나 그들은 현재 부르즈 아화 되었거나 영오의 몸이 되었고, 이 운동은 80년대로 계승. 현재는 ‘소비자 연맹’이라는 조직으로 물질적인 진보에 따른 인간이 존엄성. 우애를 주장하는 그들 최대의 근거지가 바로

이 L.A인 것이다. 한인 식당에서 점심을 먹고 할리우드로 간다. 앞에서 말한 비벌리 언덕의 호화주택지를 지난다. 보기에는 듣기보다 그리 대단치도 않은 것 같은 산동리이다. 집들은 큼직큼직하고 모두가 숲 속에 묻혔다. 6월 중순의 하늘은 맑다. 맑은 하늘은 언제 어디서 보나 싫지 않다. ‘가을 하늘 공활한데 높고 구름 없이’ 가을은 아니지만, 맑은 하늘을 보면 생각하게 하는 국가가 아닌 애국의 일 절이다. 조국. 조국은 고향과 함께 영원한 것이 아니라.

할리우드다. 유니버설 스튜디오. 영화 촬영소라기보다 유원지 같은 기분이 든다. 트램을 타고 영화 세트를 구경한다. 가장 재미있다는 대지진. 킹콩. 죠스의 3가지다. 나는 그 중에서도 대지진의 재현이 가장 스릴을 느낀 것 같다. 기둥이 넘어오다. 눈앞에서 멈출 때는 무의식적으로 몸을 피하게 되고, 평 소리와 함께 불길기 치솟을 때에는 큰 화재라도 날 듯한 공포에 사로잡히기도 한다. 킹콩은 보지 않았다. 죠스도, 트램버스를 갑자기 급속하는데 흥수도 그렇게 가슴을 조이지는 않았다. 모두가 세트라는 선입견 때문이었으랴. 잠시 시내를 굽어보는 휴식처에서 시내를 내려다본다. 바라보이는 시내는 복잡하면서도 집들은 숲 속에 묻혀있다.

아득한 시야의 끝과 맞닿는다. 운엔가 매연인가 가득 찬 연기같이 잠잠하다. 그러나 이것을 보려고 온 것이다.

오늘의 마지막 코스다. 입체영화를 본다. 8사람이 1개 소로 탄 차의 모형은 눈에 익은 스텔리온형이다. 불이 꺼진다. 이 모형의 차는 제자리에서 상하좌우로 흔들린다. 전면의 화면도 고정되어 있다. 그러나 관객은 그 화면 속을 달린다. 산도 눈앞으로 닥쳐오고, 바위가 내 머리를 내려치는 것도 같고 각종 놀랄만한 가상의 현실 속에서 관객들은 비명도 지르고 야단들이다. 끝나고 나면 제자리.

싱겁다고 해야지. 허허롭기까지 하다.

끝나고 나왔다. 같이 갔던 일행이 어질트렸다. 의자에 앉아 꼼짝을 못한다. 어떤 백인 여자가 무어라고 화난 얼굴로 한참 동안이나 쏘아 부치지만 속수무책이다. 영어를 들어도 이해를 못하는 나는 답답하기만 하다. 큰일이다. 이럴 때는 군중 속에서 고독을 느끼고 사면초가가 된다. 황당한 당황 속에서도 찾아낸 것이 병원이다. 그를 휠체어에 태워서 병원으로 갔다. 역시 말이 통할 리가 없다. 조금 후에 예쁘장한 아가씨 두 사람이 왔다. 그러나 그들은 일본사람이었다. 병원 측에서는 나를 일본인으로 간주했던 모양이다. 다행히 내가 일어난 대화가 가능하니 그녀들이 통역을 하여 치료는 받을 수가 있었다. 그동안 나는 정문까지 두 번이나 가 보았지만 일행들의 버스는 이미 떠났다. 막막했다. 해는 너웃너웃 한데 어찌란

말인가. 잠시 후 밤이 된다고 가정하니 답답한 노릇이 아닐 수 없다. 어찌거나 병원으로 다시 돌아와 그를 데리고 입구로 갔다. 3번째다. 다행이다. 안내양이 기다리고 있었다. 곳을 보러 갔다 새벽에나 돌아오는 엄마만큼이나 반가웠다. 그런 데로 당사자는 미안한 표정도 아니다. 평생에 단 한 번의 할리우드 관광은 이렇게 접어야 했다.

- <끝> -

大同世譜 (庚辰譜) 申請案内



2002년도에 발간·배포한 대동세보(족보)를 아직까지 모시지 못한 집안에서는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대동세보: 전 12권(수권1권, 자손록 10권, 색인1권)과 CD롬(대동세보 전 내용과시조~ 4세조 산소 동영상)을 수록하였으며 모든 한자에 음 표기함

○보급가격: 22만원(CD롬 포함)
CD롬 별도 구입시: 20,000원
수권 별도 구입시: 40,000원

○송금구좌: 농협 084-01-179314 심명구

※ 대금을 송금하신 후 대중회(02-2267-7857, 팩스: 02-2269-7755)에 주소와 전화번호를 알려주시면 즉시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 대동세보 편집자료 제출시 족보예약금을 납부하고 아직 잔금을 내지 않아 받아보지 못한 분들은 ‘청송심씨대중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명단이 게재되어 있으니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宗 事 消 息

三韓國大夫人 忌辰祭奉行

2007년 1월 11일(음: 11월 24일)



▶ 안효공 안효사 수원시 이의동
 初獻: 相八(광주) 亞獻: 相直(인천)
 終獻: 洪燮(서울) 大祝: 容圭(서울)
 執禮: 相稷(安孝公宗會 總務)
 執事: 彦村 應植(수원)

十一世祖 忠翼公 忌辰祭奉行

2007년 1월 22일(음: 12월 5일)



▶ 양평군 옥천면 아산리 모층재
 初獻: 明燮 亞獻: 載澈 終獻: 載玉
 執禮: 洪燮 大祝: 容圭 執事: 성섭 우섭

十三世祖 宣教郎公 時祭奉行

2007년 1월 22일(음: 12월 5일)



咸安 清安齋 宗會 總會 開催

安孝公 後孫인 13世祖 宣教郎公(諱: 廷熙) 咸安清安齋宗會에서는 지난 12월 3일 오전 9시부터 時祭를 次例대로 奉行하고, 午後 1시가 지나 서야 總會를 開催하게 되었다.

各處에서 온 後孫70여명이 參席한 가운데 개최된 이번 總會는 載均 會長님의 人事말을 시작으로 시종일관 화기에애한 분위기 속에서 회의를 마칠 수 있었다.

今年 총회는 예년과 같이 결산보고와 중무보고, 그리고 매년 施行해온 先祖山所 參배행사(始祖~12世祖) 및 宗회운영에 필요한 당면사항 등 宗會發展에 기여 할 수 있는 제반안건과 特히 來年부터는 宗회에서 宗會長을 비롯하여 任員을 選出토록한 會則改正을 別異議없는 가운데 의결하였으며, 회의를 마치고 이어서 술을 곁들여 점심을 같이 하면서 오랜만에 만난 종인들 끼리 그간 못 다한 정담을 나누면서 다음 만남을 기약하며, 오후 3시경에 本行事는 끝났다.

吳燮 提供

一松相公 영정포쇄사(影幀曝曬祀)

2006년 12월 15일(음: 10월 25일)



初獻: 鎬元 亞獻: 相直 終獻: 仁輔
 大祝: 成來 執禮: 相昊
 執事: 憲圭

曉窓公齋室(隱德祠) 竣工 懸板式



▶ 고양시 덕양구 원흥동

宗報 郵便物作業現場



▶ 격월로 宗報 6,000여 통을 靑報會 회원들이 우편물 발송준비에 열중하는 모습

宗人 여러분! 새해를 맞이하여 더욱 幸福하기를 祈願합니다.

靑報會 會長: 相直

求亨 相華 相厚 仁求 百燮 洪燮 忠燮
 容圭 三圭 載求 載澈 愚增 載烈 愚夏
 左輔 鍾赫 仁輔

謹賀新年

靑松沈氏 光州松岩宗會

顧問: 相琦
 名譽會長: 勝煥
 會長: 在均
 副會長: 基燮 鶴燮
 監事: 在永 潤燮
 總務: 在萬
 理事: 金燮 夢燮 容兌
 炳熹 在力 源善

謹賀新年

靑松沈氏 咸安清安齋宗會

顧問: 崗燮 寬燮
 會長: 載均
 副會長: 吳燮 非燮 昌燮
 總務: 載廣
 有司: 和燮
 監事: 國燮 士燮
 理事: 相守 相龍 鍾燮 仁燮
 載述 載龍 日燮 昌燮 承璟

謹賀新年

靑松沈氏 岳隱公宗會

顧問: 宜洛 蓮澤 榮燮 寧燮 琥燮 完燮
 諮問委員: 宜七 玩澤 祐澤 明澤 吳澤 相錦
 敬택 相佑 相喆 沈煜 渭燮 聖輔
 崙輔 元基 泳秀 璋秀 世用 壽澤
 相溶 만호 載吉 敬澤 重澤
 會長: 宇永
 副會長: 相國 鎮澤 輝燮 義用 東燮 揆聖
 相宣 수송
 監事: 鎬燮 在運
 總務理事: 相學
 運營委員: 相海 載洪 源澤 相秀 泰燮 相基
 光輔 大用 水澤 林燮 載坤 載華
 烽燮 揆範 善澤 在千

謹賀新年

靑松沈氏 仁川宗會

顧問: 榮燮 品求 載甲 棋赫 璣求 相吉
 副會長: 允求 在安 載冕 相圭 載鎬
 會長: 升求
 康燮 昌求 然澤 萬根 道鎮 應茂
 昌燮 相振 健燮 明求
 左輔: 旭燮
 德求 英燮(유동) 駿求 慶燮
 相泉 鉉燮 慶燮 載重 載根
 載日 賢輔 東錫 江水 在成 彝燮
 相鶴 權燮 載範 光植 晚植 載燮
 載茂 載珍 載範 載景 元輔 宗讚
 載煥 在春 在允 愚讚 鍾文 豪燮 應烈
 玉珍 麟澤 相喆 鍾文 豪燮 應烈
 (홍성동) 俊燮 奎燮 樞燮 英燮
 의창현보 相均 증식 완구



▶ 구암사 중건 곡성군 입면 제월리

Ⅰ 龜巖祠 重建 經過 報告 Ⅰ

먼저 본 구암사(龜巖祠)의 개요와 연혁 그리고 금번 중건경과보고(重建經過報告)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구암사에는 망세정(忘世亭) 심선(沈璿) 선생을 주벽(主壁)으로 제호정(霽湖亭) 심광형(沈光亨) 선생, 두암(杜菴) 심민겸(沈敏謙) 선생, 구암(龜巖) 심민각(沈民覺) 선생을 배향(配享)하여 모두 四先生을 봉안(奉安)하고 있습니다.

첫째, 주벽(主壁)이신 망세정 심선(沈璿) 선생은 조선 왕조 창업의 일등공신인 시(諡) 정안공(定安公) 심덕부(沈德符)의 증손이며, 성군(聖君)이신 세종대왕(世宗大王)이 종고숙(從姑叔)이 됩니다. 그리고 세종대왕의 따님이신 정안옹주(貞安翁主)를 자신의 며느리로 맞이하였으니 왕실과 인연이 매우 깊었다 하겠습니다. 일찍이 진사시(進士試)에 장원(壯元)하고 문과(文科)에 급제하여 여러 고을의 군수를 거쳐 예조참의(禮曹參議), 황해감사(黃海監事), 개성유수(開城留守), 경기관찰사(京畿道觀察使), 집현전대제학(集賢殿大提學)을 역임하였으며 청백리(淸白吏)로도 뽑히기도 했습니다.

단종(端宗)이 손위(遜位)하자 벼슬을 버리고 경기도 양주(楊州) 땅에 망세정(忘世亭)을 짓고 초야에 묻혀 여생을 마친 분이 강원도 영월 단종릉(端宗陵)인 장릉(莊陵)의 조사단(朝土壇)에 제향(祭享)되었습니다.

둘째, 제호정(霽湖亭) 심광형(沈光亨) 선생은 망세정의 증손으로 효행과 학문이 출중하여 당시 도백(道伯) 사재(思齋) 김정국(金正國)이 제호정(霽湖亭)의 효행은 증자(曾子)를 답습(踏襲)하였고 학문은 주자(朱子)의 정통을 따랐다고 조정에 천거(薦舉)하니 광양(光陽), 곡성(谷城), 남평(南平), 순창(淳昌) 등 네 고을 중학훈도(中學訓導)로 특별제수(特別除授) 되었습니다. 제호정(霽湖亭)께서는 1535년에 군지촌정사(涪池村精舍 : 國家指定文化財 155號)와 1543년 함허정(涵虛亭 : 道指定文化財 160호)을 짓고 강학수양(講學修養)의 처소로 삼았습니다.

당시 전라도백 둔암(鈍庵) 심광언(沈光彦, 再從兄)이 함허정(涵虛亭)을 내방하여 경관을 둘러보고 삼공불환지(三公不換之地)가 바로 이곳을 두고 하는 말인가 보

다 하고 절찬(絶讚)하면서 명가의 후예로 어찌 훈도(訓導)에만 그칠 것인가 하고 출사(出仕)할 것을 권했으나 응하지 않았으며 영호남간(嶺湖南間)의 많은 사류(士類)들과 학문적 교류(交遊)를 하였습니다.

세 번째, 두암(杜菴) 심민겸(沈敏謙) 선생은 제호정(霽湖亭)의 손자로 효성이 지극하고 경사(經史)에 박통(博通) 하였습니다.

1592년(宣祖 25) 임진왜란(壬辰倭亂)이 일어나자의병(義兵)을 이끌고 수원에 주둔한 도원수(都元帥) 권율장군(權慄將軍)을 도와 군량공급(軍糧供給)을 맡았으며 해주접전(幸州接戰)에 참가하여 큰 공을 세웠고 1598년 정유재란(丁酉倭亂)에도 의병을 이끌고 역전(力戰)하는 한편 남원성(南原城)을 수축(修築)하여 왜적(倭敵)을 대비하기도 했습니다. 순천(順天) 예교전(예삼曳橋戰)에도 병량공급(兵糧供給)에 주력하여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데 공을 세웠고 1624년(仁祖 2) 이괄(李适)란(亂)에는 병숙(兵粟)을 이끌고 근왕(勸王)했으며 1627년 정묘호란(丁卯胡亂) 때는 세자(世子)를 호종(扈從)하였고 1636년 병자호란(丙子胡亂) 때도 의곡(義穀)을 모아 강화(江華)로 수송하는 등 국난이 있을 때마다 의거(義舉)하여 많은 공을 세웠으므로 난후(亂後)에 예빈시주부(禮賓寺主簿)로 제수되고 나주(羅州) 충장사(忠狀祠)에 제향(祭享) 되었습니다.

네 번째, 구암(龜巖) 심민각(沈民覺) 선생은 두암(杜菴)의 조카로 인격이 출중하고 효도와 우애가 극진하였으며 문무(文武)를 겸비한 인물이었습니다. 1624년(仁祖 2) 이괄(李适)란(亂)에 방어사(防禦使) 김완(金完, 妹夫), 운봉현감(雲峰縣監) 황일호(黃一皓)와 함께 창기(倡起)하여 의병(義兵)과 가동(家僮) 九百여명을 이끌고 공주까지 왕을 호종(扈從)하였고 안현(鞍峴) 싸움에서 승전을 거두니 왕은 그의 공을 포상하며 청안(淸安) 증산(甄山) 현감을 제수하였습니다.

1636년 병자호란(丙子胡亂)이 일어나자 다시 의병을 일으켜 호서지방(湖西地方)을 지키면서 강화도(江華島)에 군수물자(軍需物資)를 운반했으며 나라에 상소를 올려 화친을 반대했습니다. 란(亂) 후에 영유현령(永柔縣令)에 제수되었으나 불취(不就)하고 유명(遺命)으로 병자(丙子) 후의 관직(官職)을 쓰지 말도록 가족에게 당부하였다.

本 龜巖祠는 1799년(正祖 24) 옥과(玉果) 순창(淳昌) 담양(潭陽) 남원(南原) 전주(全州) 나주(羅州) 광주(光州) 유림(儒林)들의 발의로 후손 창진(昌鎭 號 : 龔臺)이 주축이 되어 구암사(龜巖祠)를 창건하고 위 四先生을 향사(享祀)했습니다.

1868년(高宗 6) 대원군의 서원철폐령(書院毀撤令)으로 애석하게도 훼손(毀撤)되었습니다.

1906년(光武 10) 옥과 도유사(都有司) 정택(晶澤)과 당재(掌財) 윤택(胤澤)이 사우경내(祠宇境內)에 四先生의 조두유허비(組豆遺墟碑)를 세우고 봉사(奉祀) 했으며

후손 계택(繼澤, 號 : 石田)은 실전(失傳) 위기에 처한 四賢선생의 행적(行蹟)을 수집하여 사현실기(四賢實記)를 편찬하여 문헌(文獻)으로 세인(世人)들에게 천양(闡揚) 하였습니다.

1965년(乙巳) 초대 곡성중회장 균택(均澤)의 주선으로 구암사(龜巖祠) 복설(復設)을 결의하고 성금을 모으며, 출역(出役)을 하여 사우(祠宇)와 내삼문(內三門) 그리고 강당(講堂)을 짓고 담장을 쌓았으며 서원담(書院畚)을 마련하여 명실상부한 서원(書院)의 면모를 갖추고 매년 陰 3월 16일 유림들의 주관으로 향사(享祀)하고 있습니다.

2001년(辛巳) 곡성중회장 진식(鎭植)이 중임되어 구암사 현창사업(顯彰事業)을 착수하여 연차적으로 진입로 신설포장 주차장 신설포장 담장개축 내삼문 확장개축 사당(祠堂) 확장개축 등 제반사업을 6년 동안 시행하여 마침내 2006년(丙戌) 12월에 이르러 준공되었습니다. 후손들의 성금과 郡·道費 지원금을 합산한 3억5천여 만원으로 이처럼 주의 환경이 정비되어 아담하고 장엄한 사우(祠宇)에 四先生의 존영(尊靈)을 봉안하게 되었으니 우리 함께 송축(頌祝)해야 할 일입니다. 앞으로 더욱 관리를 충실히 하면서 엄숙하고 경건(敬虔)하게 향사(享祀)를 올릴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이상 구암사(龜巖祠)의 개요와 연혁 그리고 중건경과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2006년(丙戌) 12월 13일 沈愚慶

Ⅱ 龜巖祠 重建 記 Ⅱ

이곳은 谷城郡 立面 霽月里 涪村은 景觀이 수려하고 由緒 깊은 마을이다. 靑松沈氏가 代代로 살아온 이 마을 위에 날을 닷한 祠宇가 龜巖祠라 扁額하였으니 우리 先祖이신 忘世亭 諱 璿 先生을 主壁으로 모시고 霽湖亭 諱 光亨 先生과 杜菴 諱 敏謙 先生과 龜巖 諱 民覺 先生을 配享하여 모두 네 분을 奉安하고 있다.

忘世亭은 高風淸節이요 霽湖亭은 邃學篤行하며 杜菴은 倡義樹功하였고 龜巖은 爲國盡忠하여 할아버지는 孫子에게 傳授하고 叔父는 조카에게 繼承하여 빛나는 일과業績이 國乘 또는 野史에 登載되어 遺風餘韻이 미치는 곳마다 죽히 頑夫를 淸廉하게 하고 懦夫를 自立하게 했던 것이 마침내 1799(正祖 己未)년에 玉果 淳昌 潭陽 南原 全州 羅州 光州 고을 儒林들의 發議와 後孫 昌鎭(號 龔臺)이 主軸이 되어 祠宇를 創建하고 春秋로 享祀해 오다가 不幸하게도 1868(高宗 戊辰)년에 書院毀撤令으로 撤廢되어 靑衿과 縉紳이 모이던 곳에 樵童牧婢들의 놀이터로 변해 버렸다.

그 후 1906(光武 丙午)년 이곳에 玉果 宗中 都有司 晶澤과 掌財 胤澤이 四先生 組豆遺墟碑를 세우고 奉祀하였으며 後孫 繼澤(號 石田)은 失傳危機에

< 8면에 계속... >

理事 : 영동정공(華燮) 琬澤 相國 廣燮 相七
性燮 主煥 鎮澤 能光 相大 琦澤 相撤
福澤 田澤 完燮 相秀 相穆 遠燮 沈營
大澤 相國 相庭 相輪 相稷 利燮 吉澤
相龍 惠澤 弘燮 相潤 極澤 鍾섭 在太
羽澤 仁燮 時煥 周燮 相煥 光夫 相益
縣澤 相燮 상운 相祚 중택 昌燮 完圭
현령공(應漢) 上輔 文輔 慶輔 沈春
動輔 賢輔 揆泰 千輔 正秀 揆哲 揆燮
太用 正用 斗用 海用 沈澤 相彦 器煥
鎮主 燮燮 胤燮 茂燮 大燮 君燮 正煥
晟昊 貴文 龍鎮 榮周 載和 載華 載仁
在甲 基祚 致輔 賢輔 煥圭 상우 春澤
규용재기 英煥 崙輔

顧問 : 宜洛 蓮澤 榮燮 寧燮 琬燮 完燮
諮問委員 : 宜七 玩澤 祐澤 明澤 吳澤 相錦
경택 相佑 相喆 沈煜 渭燮 聖輔
崙輔 元基 泳秀 璋秀 世用 壽澤
相溶 만호 載吉 敬澤 重澤
會長 : 宇水
副會長 : 相國 鎮澤 輝燮 義用 東燮 揆聖
相宣 수중
監事 : 鎬燮 在運
總務理事 : 相學
運營委員 : 相海 載洪 源澤 相秀 泰燮 相基
光輔 大用 水澤 林燮 載坤 載華
烽燮 揆範 善澤 在千

謹賀新年
靑松沈氏 龜尾宗親會
顧問 : 鉦圭 虎燮
會長 : 寅燮
副會長 : 洙鎬
總務理事 : 載勳
理事 : 學輔 承燮 熙輔 文燮 在旭 昌錫
揆南 載文 載永 재민 우석 正燮
상화 규인 載一

處한 四先生 行績을 蒐集하여 [四賢實記]를 編纂하고 文獻으로 世人들에게 闡揚하였다. 倭人強占期와 國內戰亂을 겪은 동안 爲先事에 疏忽하게 된 것을 痛感하면서 1965(乙巳)年 初代 谷城宗會長 均澤의 周旋으로 後孫들이 龜巖祠復設에 관한 決意를 함으로써 誠金을 모으고 出役을 하여 祠宇와 內三門 그리고 講堂을 짓고 壇장을 쌓았으며 書院畚을 마련하여 名實相符한 書院의 面貌를 갖추고 每年 陰 3月 16日 儒林들의 主管으로 奉祀하고 있다. 2001(辛巳)年 谷城宗會長으로 鎮植이 重任되어 龜巖祠顯彰事業을 着手하게 되었고 年次的으로 進入路新設鋪裝 駐車場新設鋪裝 壇장改築 內三門擴張改築 祠堂擴張改築事業을 6年 동안 施行하여 2006(丙戌)年 12月에야 竣工하였다. 이처럼 雅澹하고 快適한 祠宇에 四先生의 尊靈을 奉安할 수 있도록 후원금을 보내준 道郡關係官 여러분께 깊이 感謝드리고 龜巖祠 吳仁均 都有司와 諸位 任員 및 우리 宗員 여러분의 積極적인 聲援으로 오늘의 成果를 이루어냈으니 眞實로 感慨無量하는 바이며 四賢先祖님의 忠魂英靈을 永遠도록 奉安하고 懿範과 文學 그리고 德行과 節義를 萬天下에 宣揚하고 오래도록 傳承하는 것이 우리 後孫의 道理임을 強調하고 子子孫孫 萬歲繁榮을 祈願하면서 四賢實記와 現場實狀을 按察하여 敢히 重建記로 拙文略述하는 바이다.

西紀 2006年(丙戌)年 12月 日

後孫 谷城宗會長 副郡守 鎮植 謹撰

後孫 東谷 愚慶 謹書

後孫 (株)松都綜合建設代表 愚承 謹挿

원환: 삼성전자 상무보
載爽: 삼성전자 상무보
鉉澤: 삼성SDS 상무
在琥: 삼성생명 전무
在范: 삼성물산 상무보
재인: 경기도 제2청 문화복지국장
재만: 삼성증권 IPO담당

誠金에 感謝합니다

宗報贊助

형구	300,000	禾谷洞
유택	30,000	龍頭洞
咸安淸安齋宗會	200,000	
동우	30,000	保寧
彦祚	50,000	염창동
載金	100,000	貞陵洞
덕섭	30,000	金浦
유섭	100,000	망우리
光州松岩宗會	1,000,000	
경보	30,000	水原
연섭	50,000	시흥동
홍보	30,000	昌原
창호	50,000	
龜尾宗會	300,000	
南서울宗會	100,000	
홍섭	30,000	釜山

理事會費

求亨	50,000	2006	성북동
允輔	50,000	2006	金浦
庚周副會長	300,000	2006	
斗燮副會長	300,000	2006	
甲輔副會長	300,000	2006	
贊求副會長	300,000	2006	
相稷監事	200,000	2006	
彰來	50,000	2006	忠州
相銀	50,000	2006	응암동
江水	50,000	2006	仁川
相圭	50,000	2006	仁川
載政	50,000	2006	全州
英輔	50,000	2006	명륜동
載令	50,000	2006	松岳面
在均	50,000	2006	光州松岩宗會
駿求	50,000	2006	仁川
鎮植	50,000	2006	光州
泓植	50,000	2006	瑞山
昌輔	50,000	2006	南楊州
健燮	50,000	2006	仁川
載重	100,000	2005~6	大田
載萬	50,000	2006	광탄면
載潤	50,000	2006	河南
麟澤	50,000	2006	堤川
良燮	50,000	2006	漣川
相德	50,000	2006	安城
源澤	50,000	2006	青松
蓮澤	50,000	2006	青松
然澤	50,000	2006	仁川
鼎澤	50,000	2006	青松
揆燦	50,000	2006	大田
相國	50,000	2006	青松
光澤	50,000	2006	安城
勝煥	100,000	2006~7	金堂山宗會
憲燮	50,000	2006	金堂山宗會
石俊	50,000	2006	金堂山宗會
堯燮	50,000	2006	光州
愚弘	50,000	2006	三陟
昌燮	50,000	2006	일원동
鍾洪	50,000	2005	富川
載求	50,000	2006	三陟
相鴻	50,000	2006	三陟
貞燮	50,000	2006	長城
相錄	50,000	2006	長城
載鎬	50,000	2006	仁川

人

事

- 載高: LG전선 부품사업 본부장
- 載鴻: 경기도 도민회장 취임
- 재혁: 범한여행사 대표이사
- 재철: 강원도 태백시 부시장
- 재호: 한국조폐공사 신규사업단
- 在義: 대한도시가스 익산도시가스 집단에너지사업 담당 전무
- 沈湖: 감사원 전략감사본부4팀장
- 왕돈: 한국공항 상무보
- 충택: 영남일보 광고사업국장
- 재두: 현대건설 제2영동고속도로사업단 상무
- 상련: 대한주택보증 전산직무대리
- 기보: 울진원자력 경영기획처장
- 載千: 농협중앙회 상무(조합감사위원회 사무처)
- 方裕: 두산인프라코어 상무
- 相碩: 하나은행 신용리스크관리팀장
- 화섭: 남동발전 무주양수발전처장
- 武吉: 국민은행 목동중앙 지점장
- 載五: 국민은행 개설준비위원장 롯데잡실PB센터
- 權輔: 신한은행 대명위너스 지점장
- 창섭: (주)만도 상무
- 相允: 우리투자증권 전주지점장
- 병학: (주)STX 실장
- 윤국: STX 팬오션 실장
- 鍾勛: 충남도 의사담당관
- 기술: 한국도로공사 음성·충주 건설사업소장
- 奎見: 우리투자증권 테헤란로 WMC
- 재용: 신한은행 광주법원지점장
- 창식: 외환은행 부평 지점장
- 台錫: 신한은행 관양동 지점장
- 載祿: 한국농촌공사 시설관리처 시설관리팀장
- 戊慶: 환경부 수질보전국 산업폐수과장
- 재경: SK증권 2지역본부장 직무대행
- 재춘: 한국도로공사 경기지역본부 서울영업소장
- 우섭: 한국도로공사 호남지역본부 도로영업
- 보선: 한국도로공사 호남지역본부 공사
- 相弼: 삼성전자 상무
- 淳善: 삼성전자 상무

祝

제6회 '서울대 AMP대상' 수상

2007년 2월 6일

최고경영자과정 총동창회



沈甲輔 삼익THK(주) 대표이사 부회장

祝

鍾路文化院

院長 就任

沈載得



祝

자랑스런 成均人賞 선정

沈相哲 (북미주연합동문회 자문위원)

祝

제80회 차량기술사합격

沈範柱(植)

春川晟求氏三男

정해(丁亥)년 새해아침

시인 심황섭



동해바다 지평선에
붉은 해 떠올라
구만리 하늘 나는 날개를 달고
정해(丁亥)년 원력으로 날개 짓 한다

그렇게 바쁘게 옮겨온
발자욱들은 한 해를 보내고
내 자란 시골 마을 먼 곳에
달이 외롭게 진다

찬 새벽 범종소리
어둠을 밀어내고
소망을 기도하는 마음에
먼들은 더 동해에 아침이 밝아

이글거리는 저 태양을 향해
좌절과 절망은 가고
또
흔적조차 남기지 말고 가라

이 해는
모든 것이 새롭고 푸르게 아름다움으로
징수된 맑은 샘물은 숫구쳐라
저 북 소리와 같이

訃

告

韓植(宗人) 1월 5일 오후6시 뇌출혈로 별세(63세)

(화성시 향남면 상신2리)

嗣子: 元佑 聖祐.

딸: 成禧